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 세션 14: 루크의 특징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 가. 누가복음 리뷰: 모든 이의 구원자 예수 [00:00-6:52]

A: A를 합치다; 00:00-6:52; 모든 이의 구세주 예수

이것은 루카 복음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이고 우리는 루카가 목격자들과 확인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역사가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루카 복음서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루카가 성령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루카의 우화와 루카가 가진 이러한 우화와 기적에 대한 독특하고 고유한 자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적 이야기는 과부인 여성과 외동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루카는 인간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고 그러한 유형의 내용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루카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예수가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독특한 것들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노인 시므온은 예수를 팔에 안았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놓아주십시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안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구세주로 묘사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마가는 일종의 놀라운 고통받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구원론은 구원에 대한 연구이고,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측면에서도 흥미롭습니다. 누가는 사마리아인을 다루고 있고,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셨지만, 그에게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에게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에 저는 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고 이제 구원이 다가가는 “모든” 사람 중 한 명은 여러분이 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부유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은 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비교하여 두 텍스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글을 쓸 때 단어를 나란히 놓고 있는데,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단어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결정합니다. 맥락이란 무엇일까요? 단어의 맥락은 단어 앞에 오는 단어와 단어 뒤에 오는 단어입니다. 문장의 아이디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문장 속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문장에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문장이 문단에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그 문장의 역할은 문단의 서두에 있을까요? 결론에 있을까요 아니면 문단 중간에 있을까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그 문장이 그 문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런 다음 그 문단이 더 큰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5~7개의 단락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단락은 스토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제 시험에 쓸 때는 에세이를 쓸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세이를 쓰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서론을 쓰고 서론을 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 2, 3 그리고 서론을 씁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 1번 요점이 있고, 그 다음 단락이 있는데, 1번 요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2번 요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3번 요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할까요? 끝은 시작과 같습니다. 서론 진술이 있고, 이 세 가지 요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결론은 이제 이 세 가지 요점을 보여드렸고, 요점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서론, 본문, 결론이 있습니다. 형식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17장과 18장에서 거의 연이어 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 읽지 않을 것이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썄요,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죠. 그 남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해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벽해지고 싶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제기되는 질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끝에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제 생각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18장 23절입니다. "그는 큰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 바늘귀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작은 문을 통과하는 낙타가 짐을 다 풀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늘귀는 바늘로 낙타를 바늘귀로 넣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고 부자가 돌아선다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18장입니다.

#### 나. 삭개오의 맥락 [6:52-9:56]

**B: 결합 BF; 6:52-26:19; 삭개오**

19장을 넘기면 예수님께 온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저는 그를 RYR, 즉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유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부자 청년과 실제로 성공하는 또 다른 부자, 삭개오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이 서사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 루크는 각 경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그의 부이고 그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어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눈먼 거지가 있습니다. 이 일은 여리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해 바로 북쪽 계곡에 있는 예리코에 계십니다. 눈먼 사람, 눈먼 사람이 가진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군중이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칩니다. 군중은 거지에게 말합니다. 눈먼 거지에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로 오실 테니 그렇게 소리치지 마세요.” 그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수록 그는 더욱 소리를 지르고 더욱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눈먼 거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장애물이 있고 군중이 그의 장애물입니다. 그는 눈이 멀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는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은 눈먼 거지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얻은 것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장애물이 있는데,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유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유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부유한 청년 관원. 부유한 청년 관원 이야기의 결론은, 부자가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군중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 군중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는 키가 작고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그곳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키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아이들은 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아이들은 작습니다. 삭개오는 작았고 아이들은 그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Big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큰 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 ㄷ. 삭개오의 이야기 [9:56-14:12]

어쨌든 , 그는 앞서 달려가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듯이 , 그는 무화과나무에 올라갔고, 여리고에 가면 오늘날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무화과나무는 아니지만 그는 그 길로 오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나무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이르시자, 그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곧 내려오너라. 나는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는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내려와 그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그는 죄인의 손님이 되려고 갔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지금 여기서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제가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입니다.' 누가 이것을 강조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탕자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또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집을 수색하는 여자. 여기서 예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작은 키와 균중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게는 그의 부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와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둘 다 부유합니다. 사실, 부유한 젊은 통치자의 이야기에서 결론은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부유한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는

세리이기 때문에 부유합니다. 둘 다 부유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세리들은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졌을까요? 오늘날의 IRS와 비슷한 세금 징수원들이 대부분인데,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에서 세금을 뺏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원들을 두고 로마인을 위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에게 빚진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완화하고 자신들을 위해 돈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금을 징수한다면, 세금 징수에 대한 대가로 10%, 20%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국민을 희생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땅다람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매진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민을 희생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로마를 위해 자신의 국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은 절대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오, 우리의 마태/레위도 세리였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마태오의 집에 왔고 사람들은 거기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삭개오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 다. 삭개오의 이야기 속의 구원 [14:12-17:47]

이제 부유한 젊은 관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는 부자야. 그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환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는 일어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이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괜찮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지금 여기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삭개오는 자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너무 집착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는 것은 삭개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왔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것 역시 삭개오가 구원을 얻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결론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삭개오, 그 답은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입니다.

이제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작과 끝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 멈추시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그에게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네 집에 갈 것이다. 삭개오야, 나는 네 집에 머물 것이다.”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연관성을 이해하십니까?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의 집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그는 예수를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네 집에 간다: 구원이 네 집에 온다. 사실 그들은 이것을 인 클루시 오라고 부르는 문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 시작과 끝이 같은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오시고 , 구원이 그의 집에 온다. 이 이야기는 책받침처럼 경계가 있고, 예수가 오셔서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온다는 것으로 경계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연관시키고, 예수는 삭개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세주입니다.

#### 마. 삭개오의 의미 [17:47-23:37]

이것은 이 일과 관련하여 제 과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삭개오가 "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보는 것은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는 자신이 흠친 사람에게는 흠친 것의 네 배를 갚습니다. 옛날에 저는 인디애나주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약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낮에는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다음 우리는 약 1 시간 30분 동안 미시간 시티의 최고 보안 교도소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수업에는 우리가 프로 보라고 부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 그의 이름은 존 솔츠였지만 우리는 그를 프로 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 보는 실제로 제가 가르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나왔고, 베트남 참전 용사였으며 두 사람을 죽인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Probo는 수업에 앉아서 메모를 하지 않았고, 제 시험을 볼 때는 수백 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진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고 군에서 특별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썬, 저는 그레이스 칼리지에서 약 20년 동안 가르쳤고, 그 후 보스턴 지역의 고든 칼리지로 나왔고, Probo는 감옥에서 나왔고, 당시 그는 55세였고, 감옥에서 나왔고, 실제로 감옥에서 나왔고, 그는 실제로 저에게 "테드,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할리 남자이고, 할리를 사러 갈 것이고, 대학 캠퍼스에 와서 저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할리에서 머플러를 떼어내서 많은 소음을 내고,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소음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든 칼리지에서 제 사무실에 앉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저는 프로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나왔고 그는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 보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수업 시간에 저에게 도전했고 성경에서 오류를 찾을 때마다 저를 덮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며 일종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 보였습니다 . 그는 항상 무언가를 캐내고 저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썬요,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보스턴에 있었고 인디애나로 돌아갔는데 그가 죽은 지 약 1년 후에 그가 약 1년 반 동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그의 코트가 뒷바퀴에 걸렸고 그는 오토바이에서 머리부터 가드레일에 튕겨져 나가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11월에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신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저는 론 클러터라는 사람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 론과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는 인디애나에서 온 전 동료였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고, 옛 추억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그는 "존 숄츠 기억나? 프로보 기억나?"라고 물었고, 저는 "응 , 프로보 기억나. 보스턴에 있는 동안 너무 화가 나서 아무도 그가 죽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저는 그 친구를 위해 1년 이상 기도했는데, 그는 이미 죽었고 아무도 그가 죽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고, 론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론은 "글썬, 프로보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해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는 여러 면에서 정말 기독교에 반대했습니다. 프로보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로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 삶을, 신이 제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보는 항상 “예수”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종교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았고, 프로보와 함께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내 삶을 바꾼다면, 제 삶은 제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제 삶은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삭개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4번이나 속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돌려받았을 때 “와, 늙은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이고, 누가 하는 일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젊은 관원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 다 부유합니다. 하나는 구원이 그의 집안인 삭개오에게 옵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부에 붙어 있고 그는 돌아섭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맥 간 독해이고, 제가 여기서 작업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석학은 무엇입니까? 해석학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 F. 상호텍스트성과 구원을 찾는 삭개오 [23:37-26:19]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문맥 간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젊은 통치자의 이야기를 읽고, "와, 삭개오의 이야기와 비교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유한 젊은 통치자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의 이야기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부유한 젊은 통치자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여러 면에서 삭개오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삭개오와 어울립니다. 이 인클루시오,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단어, 인 클루시오 -- 시작과 끝입니다. "내가 네 집에 간다." 구원은 누가 누구를

찾는지 연관시키면서 네 집에 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삭개오를 찾는 것인가?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역전을 연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이어그램일 뿐입니다.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삭개오가 있고, 여기에 예수가 있고, 여기에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은 장애물을 형성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찾고 있지만 군중이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그는 군중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군중은 삭개오를 중얼거리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거부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그는 크기뿐만 아니라 군중 속 사람들의 거부감과 그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군중은 예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와 연결된 것은 군중이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에게서 단절되고, 그러면 삭개오는 회개하고, 갓고, 군중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갓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회개하고 당신이 얻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구원을 찾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의 그래픽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고, 군중이 있는데 보통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어떤 장애물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많은 이야기에서 삼각 측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래픽하게 표현되고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G. 누가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맥락 속에 놓는다 [26:19-29:45]

C: GI 결합; 26:19-34:48; 세계적 맥락 속의 예수, 문제들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 모든 복음서에는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라는 인용문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는 모두 인용하지만, 오직 루크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크는 이 진술을 덧붙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루크는 예수님을 모든 이의 구세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는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을 계속 인용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진술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작은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이며, 누가복음 2장 1절과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냥 읽어 볼게요. 누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맥락에 두고, 누가는 유대인이었고 초점이 다소 좁은 다른 사도적 저술가들보다 더 큰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이 있고, 그런 다음 3장 1절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와 함께 세계적 맥락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국제적 맥락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를 연대순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는 "로마 세계 전체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퀴리니우스 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인구 조사였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시리아 총독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와 같은 종류입니다. 시리아 총독은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서 비슷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통치 제15년에", 여기서 또 다른 암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또 다른 카이사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티베리우스가 언제 통치했는지 압니다. 제15년에, 그것은 매우 유용한 티베리우스의 특정 연도를 언급합니다. 이런 종류의 역사적 논평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으므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제15년과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다면 이 역사를

걸기에 좋은 고리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을 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래아의 분봉왕이었고, 드라고닛과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을 때, 안나 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과 팔레스타인의 총독들을 알 뿐만 아니라 안나스가 가야바와 함께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이 로마 총독들의 더 큰 그림 속에 위치시키는 듯합니다.

## H. 비평가들의 반응 “누가복음의 문제점들 [29:45-32:40]”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 역사와 모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인구 조사가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알려진 인구 조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인구 조사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외부 역사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6년 이전에 퀴리니우스 인구 조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기 40년에서 서기 100년경, 즉 그리스도 시대 이후이지만 여전히 서기 4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고대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인에 대한 가장 완전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인구 조사가 서기 6년에 이루어졌다고 언급합니다.  
 문제는 뭐죠? 예수는 기원전 4년이나 5년에 태어났는데, 인구 조사는 10년  
 정도 빗나갔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퀴리니우스는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에 총독이었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퀴리니우스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생겨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누가복음 학자인 다릴 바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렐 보크는 댈러스  
 신학교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신약 학자 중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한 명이며,  
 예수를 전문으로 했고,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통치  
 기간에 세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사람들을  
 등록했고, 로마인들이 인구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등록할 때 각 지역이 그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총독들이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본 영토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이  
 온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유대인적인 방법이었고 로마인들은  
 그 지역의 토착 관습에 따라 인구 조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매우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인구 조사는

서기 6년이었습니다. 다른 인구 조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요세푸스는 서기 6년의 인구 조사를 언급했지만 기원전 4년이나 5년에 실시된 인구 조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I. 침묵으로부터의 주장 [32:40-34:48]

그러니까 그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그게 바로 침묵의 논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세푸스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인구조사를 모두 나열했나요? 아니요, 기원전 0년 이전에는 인구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논증이고, 그건 약한 논증입니다. 세속 역사에서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고학에 들어가서 고고학을 파헤치면 고고학적 자료의 극히 일부만 있습니다. 고고학의 대부분, 대부분은 여전히 묻혀 있고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꽤 많이 이루어졌지만 고고학은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침묵을 근거로 무언가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걸러내야 할 물질이 말 그대로 수백 톤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보크가 언급한 키리니우스 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키리니우스가 두 번이나 총독을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그는 총독을 지낸 후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카이사르를 위해 다른 임무를 수행한 후 돌아와서 다시 총독을 지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는 두 번이나 총독을 지냈을 수 있으며,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모순된다고 말하는 역사의 주장에 주의하세요. 실제로는 모순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증거가 없을 때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낱짜 문제이고, 그게 우리가 2장에서 작업해 온 것입니다. 키리니우스 와 인구 조사가 없다는 것, 키 리니우스를 철자로 쓴 것 , 요세푸스에 따르면 서기 6년이 되어서야 있었고,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이 명령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J. 누가복음의 노래: 찬송가 와 베네딕투스 [34:48-38:29]

D: JN을 합친 것; 34:48-48:51; 누가복음의 노래와 사람들

이제 누가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달콤한 가수가 누구인지 물으면, 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달콤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노래와 것들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서 다윗 왕이 쓴 72편의 시편에는 "다윗을 위하여" 또는 "

다윗에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는 제목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노래, 신약에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노래일 수도 있지만, 신약의 작곡가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멋진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노래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들은 라틴어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노래들은 모두 매우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실제로 이름이 있고, 때로는 수도사들이 라틴어로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gnificat라고 불리며 이것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루크가 마리아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것들, 그녀의 마음에 매우 가까운 것들을 매우 면밀히 읽을 수 있습니다. 루크는 그녀가 이러한 것들을 그녀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루크는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 내 영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내 영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밝힌 것을 주목하세요. 루크에게 구원이 큰 주제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Magnificat* 라고 불립니다.

*Benedictus* ,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올해 몇몇 학생들은 라틴어로 *bene*는 "잘" 또는 "좋음"을 의미합니다. *Dictus*는 "diction"을 의미하는데, diction과 같이 "말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benedictus*는 잘 말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은 교회 예배가 끝날 때 목사는 보통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 그가 사람들에게 잘 말한다는 뜻입니다. Park Street Church에 가면 Gordon Hugenberg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기를"이라고 말하고 숫자 6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과 같습니다. 여기 *Benedictus*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Zacharias*입니다. *Zacharias*는 누구입니까? *Zacharias*와 *Elizabeth*는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가라는 믿지 않았지만 그는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라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누가 언급한 성령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사가라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했습니다. 사가라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가 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주제에 주목하세요. "그는 그의 종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가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베네딕 투스*입니다.

Excelsis 의 Gloria 와 Nunc Dimittis [38:29-40:24]

*엑셀시스 의 글로리아* , *엑셀시스 의 글로리아*를 기억하시나요? *deo* . 우리가 높은 곳에서 들은 천사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Gloria in excelsis* 는 천사들이 부른 노래의 라틴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음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음악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2장 14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들 중 마지막 노래이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늙은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아기 예수를 팔에 안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고, *솔치 디미티스*는 라틴어로 “이제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놓아주십시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누구입니까? 삭개오, “구원이 당신의 집에 왔습니다.” 시므온, 아기 예수,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그 주제를 다룹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신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들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네 가지 멋진 노래입니다. 누가는 신약성서의 시편 기자입니다.

#### **L.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 탕자와 에마오로 가는 길 [40:24-42:46]**

이제 루크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우 면밀히 읽고,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오고, 아버지와 아들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게 상속 재산을 줍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은 탕자에 대한 무료 온라인 기사를 읽어야 했습니다. 훌륭한 기사이고, 기본적으로 이 남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가 키운 부를 낭비하고 상속 재산을 음탕한 생활에 낭비했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자 그는 모든 친구, 모든 와인, 여자를

가졌지만, 재산이 없어지자 친구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와 함께 지내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나온 셈족의 관용어를 이해하시나요? 아버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하고 붙잡고 아들을 환영하는 것은 거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탕자의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내면의 친밀함의 모든 이런 작은 개인적인 것들을 집어냅니다. 나중에 에마오로 가는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부활 후에 걷는 두 사람이 있고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7마일을 걸어가는데, 안식일 여행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이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 예수는 놀면서 "아니, 더 말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면서 "그가 성경을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타올랐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는 그들과 함께 빵을 떼는데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빵을 떼자 갑자기 그들은 그를 알아보고 이것이 예수라고 말하고 그는 떠납니다.

#### M.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들: 여자들과 아이들 [42:46-45:31]

여성과 어린이, 우리는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8장 1절에서 3절까지 여성과 어린이가 예수의 필요를 충족시켰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여성들이 예수를 지원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내는 분명히 예수의 사역을 여행하며 지원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모든 여성들도 지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예수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애도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곳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가 슬픔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여러 역을 볼 수 있고, 15개를 볼 수 있습니다. 3, 4, 5번째 정거장에서 예수님을 위해 울고 통곡하는 여인들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27 이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루크는 나인의 과부를 다룹니다. 외아들이 죽은 나인의 과부와 예수께서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리오를 기억하십니까? 야리오는 예수께 와서 “내 딸이 죽음 직전입니다. 예수, 제발 와서 그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아들입니다. 루크는 이 외아 모티브를 다룹니다. 그녀는 그의 외아들이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야리오 의 집으로 가는 동안 “소녀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스승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가 죽은 지금 왜 그가 와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네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녀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외아들” 모티브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9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야리우스는 8장 42절에 나옵니다. 9장, 다음 장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7장에서는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8장 42절에서는 야리우스 의 딸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그다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8장, 9장,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9장 3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외동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동아는 이 귀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외동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는 외동아와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듯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인 듯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주 면밀히 읽고 있습니다.

## N.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노래와 사회 정의 [45:31-48:51]

이제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마리아의 노래에서 저는 전에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찬송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는 이런 종류의 역전이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많은 것들에서 이것을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보통 누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런 종류의 맥락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의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이 구절들을 뽑아냈어요

문제는 죄와 구원,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사회 정의 문제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구원 문제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 문화가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사회 정의에 집착하고 사회 정의를 크게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구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인가 저것인가입니다. 답은 아니요, 둘 중 하나가 아니고 둘 다입니다. 문제는 한 그룹이 가난한 사람, 특히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유형의 사람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용하고 사회 정의 문제를 사용하고 성경을 협력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이러한 주제를 성경에서 찢어내고 기본적으로 그 주제에서 벗어나 회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복음의 다른 측면을 무시하고 뒷전으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양쪽 극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계에서 - 그리고 대부분 대학에서 - 사회 정의 문제가 강조되고 죄로부터의 구원과 구속은 과소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계와 대학, 대학교가 다른 측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회 정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 0.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모든 것을 팔고 비유를 들으십시오

[48:51-51:41]

**E: 0를 결합하다; 48:51-51:41;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12장 31절, 14장 33절, 18장 22절에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누가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공유했을 때 정부가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삭개오처럼 사람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당신은 부가 있고 나는 가난하니 당신의 돈을 내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일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는 가난하니 당신의 돈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음과 관대함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정직성이 필요하므로 도덕적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선택: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선택과 개인의 선택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입법화하고 그것을 필수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든 부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라마데아 요셉이 예수의 무덤을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라 마데 아 요셉 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보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으로 그들을 돕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좋은 일에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부자의 헛간은 다음 날 죽을 사람이고 더 큰 헛간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네 영혼이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가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절대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해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0으로 죽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고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것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고귀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부자의 헛간은 가지고 갈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나사로와 다이빙. 나사로와 부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 잠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P. 나사로와 부자의 우화 [51:41-56:19]**

F: Combine PT; 51:41-73:30 **종료 ; 나사로와 부자, 지옥**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측면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성경이 지옥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입니다. 정말 "지옥"이라는 곳이 있을까요? 선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선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는 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신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택을 하고 결국 그곳에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16장 19절에 "자주색[부의 상징]과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자 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개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긴다. "개들조차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거지가 죽고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곁으로

데려갈 때가 왔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묻혔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 조금 말해준다. “지옥에서 그는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이 그의 곁에 나사로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항상 누가 이름이 있고 누가 이름이 없는지 주의하세요. 이 이야기 속의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나사로에게 이름을 붙여 존엄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부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결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결코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므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불렀습니다. ‘ 아버지 아브라함,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제 혀를 식히십시오. 저는 이 불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 고통, 고통,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는 혀를 식힐 무언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고, 우리는 여기서 비유, 예수께서 부자 와 나사로 사이의 이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이야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나 아브라함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너는 살아 있는 동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너에게 가고자 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구렁이가 있고, 분명히 당신은 그 구렁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 구렁을 건널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건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 주십시오.’” 그는 다시 나사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두 부분입니다. 모세, 그들은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하는 선지자들은 이전 선지자와 후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정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는 지옥에서 꾸중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지만 누군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는 이것이 편치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지만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돌아오실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 Q. 대조적인 묘사와 지옥의 의미 [56:19-59:13]

그래서 이것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이고, 그러면 지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조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부자의 사치와 나사로의 빈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에서는 사치와 함께 있는 부자가 지옥에 있는 반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거지 나사로는 들어올려집니다. 그는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다른 세상에서 형제들을 기억하지만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의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개들이 상처를 핥는 식탁 옆에 있는 가난한 거지이지만 나사로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한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돌아온 예수를 예고하고, 그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 누군가가 죽음에서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요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회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한가요? 이 삶이 중요한가요? 이 삶이 결정하고, 우리의 결정이 결정적일까요? 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무섭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까요?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이 세상에 참여하고,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낳는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장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한한 시간적 세상에서 80, 90년, 어쩌면 지금쯤은 날아다니며 80년이나 90년을 보내고,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결정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지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옥을 무시하고 “지옥에 지옥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좋은 분인데, 예수님은 양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쪽을 다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지옥에 계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ㄴ. 지옥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 [59:13-62:12]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세울* 입니다. *세울*은 일종의 지하 세계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울*은 종종 단순히 “무덤”을 의미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땅에 묻을 때 그들은 *세울*이라는 단어를 무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사람을 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울*은 단순히 “무덤” 또는 “무덤” 그런 종류의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어 : *Gehenna* 는 실제로 히브리어로 두 단어입니다. *Geh* 는 기본적으로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Henna* 는 *Hinnom*을 의미하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Hinnom Valley* 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Jerusalem Uni*

versity College에서 공부하러 간다면, 그것은 Hinnom Valley의 바로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Hinnom Valley 는 돌고 Jerusalem University College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 이 불타는 장소는 이 Gehenna 가 되고, Hinnom 의 골짜기 , 이 불타는 장소는 이 불타는 장소로서 지옥에 대한 은유 또는 더 나은 환유가 됩니다.

힌놈 골짜기가 알려진 또 다른 것은 그들이 자녀를 불태우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모압과 에돔과 요르단 강 유역에 케모스 와 몰렉 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신들이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사람들은 실제로 자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힌놈 골짜기에서 몰렉 과 케모스 신에게 자녀를 불태웠기 때문에 매우 나쁜 곳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가상 현실인 Get Lost in Jerusalem 을 위해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걸 기억해요. 저는 힌놈 계곡으로 내려갔고 일찍 나와서 혼자 갔어요. 보통 혼자 여행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고 힌놈 계곡 쪽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이 쓰레기 매립지, 힌놈 계곡에 있는 불타는 장소를 360도 사진으로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로 걸어가서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 세 명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와서 저를 향해 바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고 삼각대와 카메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달려갔어요. 이  
남자들이 저를 쫓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쨌든 힌놈 계곡의 쓰레기  
매립지는 게헤나 , 지옥 , 하데스 또는 심연의 장소  
를 뜻하는 은유로 사용되었는데 , 기본적으로 지하 세계를 뜻해요.

#### S. 현대 문화 속의 지옥 [62:12-67:15]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에 반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사랑이 많고, 신은 친절하며, 신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때때로  
신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일이 일어나고 영원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한 스트레스에 주의하세요. 죄가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죄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최소화합니다. 분명히 죄는 신에게 매우 큰  
문제여서 신은 아들을 보내어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신에게 큰  
문제입니다. 항상 용서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저는 천국의 영원성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수백만, 수십억 년 동안 천국으로 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양을 한쪽으로, 염소를 다른 쪽으로 나눕니다. 양은 그의 왕국으로 초대받습니다. 염소는 울부짖고 이를 갈게 하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47을 보세요. 모든 저자들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누가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태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가는 이제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한 손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것에 대한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나쁜 곳입니다. 마태복음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할 것이요, 나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 마태복음 23:23: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가버나움]보다 나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음이니라.”

이 모든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벌의 수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버나움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상의 수준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꽤 명확한 부분은 사람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연루된 불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묻고,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일까요?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 신이 있고 그가 누군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신을 결코 숭배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신을 숭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글쎄, 나는 지옥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을 바꾸거나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존재한다면 존재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차에 치였다면 "차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실제로 당신을 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저 다리를 다쳤을 뿐입니다, 버스터.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어느 지점에서 깨집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사람들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현실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머릿속 밖에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고든 버블에서 벗어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실마리를 잡고 현실에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천국은, 그런데 지옥을 없애면 천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천국도 없애나요? 우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 **T. 대체 해석과 마지막 생각 [67:15-73:30]**

다른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에 대한 진실은 그것을 이해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저는 겁에 질려 뭔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뉴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에 있고 여기가 보편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천국에 환영하고 그들은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천국에 갈 때 문에서 기다리는 저를 보게 되면 말합니다. 피터가 저를 붙잡고 손을 흔들며 "안녕, 힐드브란트, 잠시 후에 여기로 들어와."라고 말합니다. 피터에게 저를 들여보내라고 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편주의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상이 더 크고 보상이 적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편주의라고 부릅니다.

보편주의의 문제점은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과 염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제가 보편주의에 문제가 있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염소와 양이 있고 심판 때 분리되고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 관점은 소멸론적일 것입니다. 소멸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멸되고 나쁜 사람들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더 자비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하면 소멸은 자비롭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음 이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심판 전일 수 있으므로 그는 심판 전에 고통을 받고 양과 염소의 심판은 나중에 나사로 이후에 옵니다. 소멸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 저는 왼쪽으로 멀리 걸어가는데 이걸 제 추측이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은유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게 뭐지?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천국에 있고 자녀가 지옥에 있는 경우나 남편이 천국에 있고 아내가 지옥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어떨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죄송합니다. 아내가 천국에 있고 남편이 지옥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정말 자상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보편주의자는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말해야 할 것이 그것일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저는 모른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고 이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단서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 모든 사람이 구원과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죄와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을 “축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소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순수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화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세상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 곳으로 인도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씻겨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제 가족 구성원, 저 자신, 모든 사람을 위해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그 밖의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루가복음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ittany Marshall이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